화합 · 평화 기원한 해인사 '정대불사'

4월 7~8일 팔만대장경의 날 행사
팔만대장경 조성정신 · 가치 조명
다양한 대중 참여 체험프로그램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사진은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우측 첫 번째)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우측 두 번째) 등 대중의 정대요잡 장면.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팔만대장경에 담겨있는 소중한 뜻과 조성과정에 깃들어 있는 선조들의 정성을 기리기 위한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4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봉행했다.

해인사 및 장경판전 일원에서 열린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의 첫째 날인 7일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주차장에서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이 재현됐다.

저녁예불 후에는 만불보전과 보경당에서 일자일배 사경의식이 진행됐고 팔만대장경 법문과 철야기도가 보경당에서 봉행됐다.

둘째 날인 8일에는 보경당 앞마당에서 대장경 인경체험행사가 열렸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호국금광명경 합송. 법보전 합장순례 및 정대요잡, 소전 및 회향, 생전예수재 2재가 봉행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인사 곳곳에서는 경판에 먹물을 묻혀 팔만대장경을 찍어내는 인경 체험, 에코백 만들기, 전통열쇠고리 만들기, 솜사탕 나누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고유문을 통해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팔만대장경을 설하셨고, 우리 선조들은 몽골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새기고 종이에 찍어내어 세상에 유포했다"며 "오늘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했던 뜻을 기림으로써 이 시대의 모든 재난을 극복하여 국민화합을 이루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몽고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할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조성했고 호법이라는 팔만대장경의 영험은 결국 백성을 지켜주는 호민으로 나타났고 호민은 그대로 국토를 지켜준 호국으로 이어지는 세월이 800여 성상을 지나 판전의 영험은 법복음의 기도자가 되었고, 그 영험의 가치를 잇고자 백성들의 호법을 위한 참배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종훈 문화재 보존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외세의 침입과 재난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16년에 걸쳐 8만 매가 넘는 목판에 모든 불경을 판각했고 이후 무려 1천 년에 가까운 시간 걸쳐서 전해진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세계 기록유산"이라며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이 전쟁과 질병 그리고 가난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와 함께해온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온 난관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윤철 합천군수의 축사, 심재상 해인사 신도회장의 정대불사 발원 낭독이 이어졌다.

기념식을 마친후에는 대적광전 마당에서 호국금광명경 합송, 탑마당-독성각옆길-연화문-장경판전 내부-학사대-청화당 옆길-해인도-보경당 앞에 이르는 법보전 합장순례, 공덕주 위패이운, 정대요잡에 이어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13명의 공덕주에게 올리는 헌다례와 소전을 마무리됐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를 통해 선현들의 팔만대장경 조성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전쟁 · 질병 · 가난이라는 삼재를 소멸하여 국운융창을 발원하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과 평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자비 평화의 꽃내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자 매년 양력 4월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봉행해 오고 있다.

보은사, 월암스님 초청 백고좌 법회



보은사(주지 도제)는 4월 9일 대웅전에서 제4회 보은사 고월 백고좌 법회를 열고,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씩 10년 동안 진행하는 백고좌 법회는 올해 4번째로 전국 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의 '참선수행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1시간의 열띤 강연을 진행했다.

월암 스님은 법회에서 "본래 마음자리 심지가 빛이요 광명이다. 무등에 빛고을이 있으니, 광주는 빛을 밝히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본래 부처님이 사는 마을이 광주"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참선수행에 대해 "최근 4차 산업혁명 이후 명상이 대세이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며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5만 번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한 생각에 천당과 지옥을 만들어, 육도(六道) 윤회가 자신의 한 생각에 있다"며 "하루에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에서는 탄생부터 죽음을 일생이라고 하지만, 선(禪)문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生)이요, 생각이 멸(滅)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성 자리는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없다. 이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대 수좌로 꼽히는 월암 스님을 모시고 큰 말씀을 듣게 되어 감사하다. 마음을 가진 모든 생명이 모두 부처이니, 모든 생명을 대하기를 부처님 모시듯이 해야 하며, 이것이 곧 불공이고 법당에서 하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보은사는 5월 6일 정목 스님(BTN-나무그늘아래서) 초청 백고좌 법회를 이어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정토원 아미타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4월 9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아미타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금불사 점안법회는 30년 만의 일로 정경원 불자의 원력으로 봉행하게 됐다.

선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토원 수광전 아미타부처님께 금빛 새 옷을 입혀드리는 의식으로 새로이 불상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봉화산 정토원 사부대중은 아미타부처님께는 새 옷을 입혀드리며, 우리 스스로는 더욱 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내가 거추장스럽게 입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불필요한 옷을 벗어버리는 수행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음무, 극락무, 민홍철 국회의원의 축사와 기념축시 낭독이 진행됐다.

김해 봉하마을 봉화산자락에 자리 잡은 정토원은 1964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한 故 선진규 법사가 사상과 이념, 정치와 종교, 지역,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하자는 염원으로 호미든 관음상을 조성한 후 2021년 평화통일 염원탑을 조성한 바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선진규가 법사가 수광전에 노무현 前 대통령과 김대중 前 대통령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토원은 바람개비 책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경내 일원에 봉하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쉼터도 조성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우 스님 "지역 맞춤형 전법 나서겠다"

4월 8일 특별무대서 주지 진산식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대중 참석



선운사는 4월 8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20대 주지 경우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8일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20대 주지 경우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경우 스님의 주지 진산을 축하했다.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대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선운 수행공동체 구성원들은 언제나 서로 의지하고 탁마하고 기도하고 운력하고 화합할 것을 다짐하며, 금일 도솔산을 불국토로 장엄한 진산 공덕을 널리 법계에 두루 회향하고자 한다"고 불보살전에 고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오로지 전법 포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늘려가고 있으며, 수행, 신행, 복지, 문화 공동체로서 승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장을 밑거름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법포교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 스님은 이어 "안정 속에서 변화를, 변화 속에서 화합을, 화합 속에서 본래면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선운사 대중은 물론 교구스님들과 함께 선운사의 본래면목을 찾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 경우 스님은 지난 8년간 선운사 본 · 말사 공개 살림을 실현해서 재정 투명성을 높여왔고, 승려 노후 수행마을 운영 등 승려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해 왔으며 이를 통한 교구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구의 지역사회 활동을 증대시켜 왔다" 고 치하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승가공동체 회복과 지역과 함께하는 교구 본 · 말사의 역할 그리고 선 명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선운사가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법의 화합 제일이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이고 정법을 논하고 서로 대중의 뜻을 모으는 것 밖에는 없다"며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뜻을 모아 앞으로 선운사의 발전과 우리 종단에 기여할 바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진산식에 있어 총무원장 스님과 원로 대덕스님, 기관장들과 같이 축하할 수 있어 저도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종단에서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역할을 했을 때 선운사가 더욱 빛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뜻을 모아 뜻을 펼 수 있게 축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선운사 임종혁 신도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생전예수재 회향법회가 저녁 무렵까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석가여래 정법안장 건당식



세계불교교황청 칠곡 각황사가 4월 10일 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에서 석가여래 정법안장 77세 및 78세 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석가여래 정법안장 77세 석담 스님, 혜광 스님, 78세 곡담 스님, 경산 스님, 거불 스님, 청명 스님에게 전법게를 설하고 전법을 증명하는 대가사, 장삼, 발우, 전법게, 장실, 계보를 전달했다.

능인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법의식을 통해 석가여래 부처님의 안심법문을 모두 전했다"며 "수행과 전법을 통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하기 바란다"고 설했다.

이 날 입실건당을 마친 스님들은 "중생제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중생 속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수행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입실건당법회에는 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대승통, 대한불교호법조계종 호법 스님, 세계불교교황청 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 청련암 원산 스님, 유리정사 봉화 스님, 백이사 청아 스님, 성원사 법연 스님, 금산사 보우 스님, 혜광선원 혜광 스님, 위봉사 석담 스님 등 가산문도회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은 제7대 총무원장 운봉 스님에게 임명패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7회 차 · 시 · 락의 밤 개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이 4월 8일 대웅전 앞마당에 차려진 야외무대에서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7회 '차시락의 밤' 을 개최했다.

차시락의 밤 행사는 신록이 짙어가는 산사의 진달래 꽃길을 걷고 절 마당에 차려진 장마당에서 떡메를 치고, 그 떡으로 화전놀이를 즐기고 저녁공양을 마친 후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 제7회 울산연주인의 상은 최기삼 전자 올겐연주가가 수상했다.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그간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촐한 행사지만 잠시라도 일상의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축사에서 "7회째를 맞이하는 '차 · 시 · 락의 밤' 은 문화예술을 아끼는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소중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며 "특히 기량이 뛰어나지만 소외받기 쉬운 연주인을 매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고요하고 아늑한 산사에서 자연의 소리와 어울리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는 훌륭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었다"고 치하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차시락의 밤은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으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차 · 시 · 락의 밤' 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며 "정관암의 맑고 청명한 기운으로 세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번뇌를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치유의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연에는 드러머 김민동의 드럼연주, 마술공연, 박선혜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으며 트롯공주 전유진이 출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 부안해양경찰서 업무 협약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4월 10일 직원 복지향상 및 정서 안정, 내소사 템플스테이 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소사는 해양경찰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정서 안정을 위해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소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소사와 부안해양경찰서 양 기관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협약안을 도출했고, 이번 템플스테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템플스테이 체험이 한국 전통문화로서 종교를 떠나 문화체험 또는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고, 부안해양경찰서와 내소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소사 템플스테이는 사찰예절과 명상 등 휴식 프로그램과 직소폭포 트레킹, 백팔 염주 만들기, 전나무숲 걷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해양사고 및 범죄 현장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내소사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속에서 전통사찰 수행체험 기회를 통해 정신 수양과 정서 안정을 통해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주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주지 월봉 진성 스님과 묘향 스님을 비롯해 애써주신 내소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템플스테이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힐링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본말사 생전예수재 회향



금산사(주지 일원)는 4월 9일 본 · 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계유년 윤달을 맞아 지난 2월 20일 입재 후 49일간의 기도를 회향하는 이날 생전예수재는 조계종 어장 인묵 스님과 종장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으로 봉행됐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이번과 같이 윤달이 돌아오면 생전예수재에 동참해 자신이 쌓은 업보를 녹여내고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자에 맞는 수행방법을 골라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면 삶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참회기도와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이날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불자들은 평소 스스로의 신행생활을 점검하고 불보살님과 호법신중의 가피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닦아나가는 보살행의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